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一)

跛龔生

從來 一般學者는 哲學을 가지고 形而上學이라하얏는데 哲學者가 아닌 나는 이제 形而上學의 煩雜한 理論을 展開코자 하지 안커니와 周易이 支那哲學의 先祖인것은 勿論이오. 또 그內容으로 볼 것 같으면 일즉 宋儒들이 主張한와같이 周易은 萬學의 祖宗이오. 源泉으로서 그 안에

政治 와 社會와 經濟와 文學 等の 만흔 思想이 包括되고 잇을 뿐만 아니다. 甚至於 物理學, 生物學, 數學, 道記學等の 理論및 技術까지도 비록 片片的이오. 또 粗雜하나마 論難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周易은 哲學的 學術로 看做할수없으나, 그 大部分이 學을 組織하고 또 모든 學問에 對한 一般的 普遍的 原理를 闡明함으로써 宗旨를 삼은만큼 그 思想와 傾向의 如何은 別問題로 하고 周易은 一種의 哲學的 圖述이라함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八卦로 公式한 六上四卦의 政治形態로 볼지라도 그것은 自然主義的 宇宙觀에 依하여 政治社會의 變革原理를 組織한 抽象形態를 圖示함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니 말하자면 周易은 社會的

規實 을 究明한바 方法論으로서의 政治哲學이라할수있다. 그런데 一般으로모든 的組織은 그 特殊的 研究을 一層偉大한 節로 包擁하고 또 個別的 問題를 一層普遍的 觀點 에서 定하여 그에 對한 原理를 確立함에 잇거니와 어떤 哲學者의 말길에 哲學의 本質은 그러한 原理 그것을 本來의 研究對象으로 하關係上 어느 原理의 決定을 보아 普遍的인 것으로부터 導出한 고 어떠한 境遇에 잇어 서도 그것을 規定치 아니하면 는 것이니 그러므로 哲學的 方에 잇어서는 어떠한 特殊問題일지라도 그 脈絡을 自己로부터 發 드디어 最高究極의 問題에 미치지 안는것이 없다. 따라서 所謂哲學的 事相에 對하여 哲學的으로 論하고자하면 어떠한 境遇에서도 그 立場을 全體와 가운데 定치안하면 안 된다. 그러 하여

特殊科學이 發達치 못한 時代에 잇어서는 哲學的 口述은 必然的으로 萬學을 結合하고 集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從來의 周易이 萬學의 口口이 되고 祖宗이 되어 모든 학문을 包括한것은 足히 怪異할바아니다. 그리고 生死問題에 對해서는 從來 哲學的으로 論述한 實의 生物學的으로 口口한 者가 적지 안커니와 周易에 잇어서는 그 兩口을 結合하여 觀察한만큼 卽生新學的 見地에서 觀察하고 또 哲學的 方法으로 論難한만큼 特別히 우리 의 關心을 惹起하는것이 있다.

勿論 그도 周易에는 生物學과 哲學이 모두 包含되고잇는 그 까닭이라 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그를 다른 著述과 學者와 마찬가지로 或은 哲學的으로 或은 生物學的으로 格別히 論難치안코 同一한 處所의

同一 한 表現으로 그의 兩面을 結合한것은 特殊科學이 發達되지못한 時代에잇어서 어쩔 수없는 粗朴한 表現이라고 速斷키 어려운것이 잇슴을 發見할 수있다.

그리고 周易은 『形而上者를 謂之道이오. 形而下者를 謂之器이오. 比而裁之를 謂之變이오. 推而行之를 謂之道이오. 學而措天下之民을 謂之事業이라』 고 하였는데 周易思想의 道는 理를 이룸이오. 또 理는 自然作用으로서 物의 屬性을 이룸이다. 다시 말하면 物을 實體라하면 理는 그 實體의 技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元來自然을 어떠한 意識에依하여 作爲하는것이 아니오. 自然이 運行하는것이니, 그러므로 至公無私하여 陰陽이 生하고

陰陽 이 生함으로서 剛柔가 定해지고 剛柔가 定함으로써 事物의 變化가 生하여 吉凶이 判斷된다. 그리 하여 自然은 難함도 없고 易함도 없으며 또 可함도 없고 不可함도 없는 것이니, 말하자면 日이 往하고 月이 來함에 무슨 難易가 있으며, 또 冬이가고 春이至하면 무슨可, 不可가 잇으랴. 그러므로 周易思想에 잇어서 天의 時는 그 行이 健하여 自強不息하니 그 施하는바는 險阻도 없고 凝滯도 없이 冬에 結凋한 生物은 春이 來하면 蘇生하였다가 다시 秋가 至하면 凋落할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古代社會의 思想에서도 發見할수잇는 自然主義的 宇宙觀이어나와 그러나 이러한 自然主義를 組織함에 當하여 周易은 乾以易知오. 坤以簡能이라』 하여 意識을 超越한

乾坤 이 事物을 生生할새 何等의 艱難도 繁擾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意識으로도 그를 損塞할수도 蔽隨할수도 없다함은 特히 注意할만한 事實이다.

그리 하여 時間인 死의 知는 易하고 空間인 坤의 能은 簡하니 天時와 地

理는 勞함도 費함도 없어 그의 無窮한과같이 事物이 生生함도 無窮하다하였다. 그리고 生을 生함에 乾는 資해야 始하고 坤은 資해야 生하니 乾의 □然함과 坤의 □然함이 각기□이 있어 秩序와 條理가 繁亂치아니함으로 乾의 知는 易하고 坤의 能은 簡해야 乾은 精을 費치 안코 坤은 力을 勞치안는다하여 人類의 分業이 發生한 理由를 論破하였거니와 元來人間은 性으로 分別하고 또 職業으로 區分해야 乾의 易을 體行함과 함께 坤의 簡을

實踐 하니 저들의 知와 能은 天時와 地理를 實行해야 萬物을 富有하고 文明을 享樂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周易思想의 自然主義的人生觀은 天時의 易直과 地理의 簡明은 險阻와 繁擾가 없이 無際無疆하고 光大豐富하되 艱難과 勞費가 없으니 그러므로 人間은 天時의 易直을 法하고 地理의 簡明을 體해야 그 織을 分엿고 業을 別하면 그功이 크다 하였다. 그리하여 『易則易知오. 簡則易從이라. 易知則有親이오. 易從則有功이라. 有視則可久오. 有從則可大라. 可久則賢人之德이오. 可大則賢人之榮이라』 하였다.

그런데 形而上者, 謂之道의 『도가 어찌 해야 理가되느냐하면 簡易는 『一陰一陽之謂道』라 하니 여기서 말한

一, 陰 一陽은 事物의 固有한 技能에 依하여 動作하는 狀態를 이룸이오. 또 그 狀態는 必然한 物理가 必然적으로 表現된것인 까닭이다. 그리고 元來物의 잇음에 作用이잇는 것이오. 먼저 作用이 잇어서 物이 잇는 것이 아니어니와 宇宙의 物質은 滅치 아니하되 어느 物의 作用은 그 物變化함으로 말미암아 消滅하는 것은 너무도 分명한일이다.